

“심인당, 지역 문화 중심지로”

▲임기가 이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26대 총리원장으로 재임하며,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종단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단의 갈 길이 분명해지니 진언행자들의 자신감도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가 3개월 남았지만 어떤 분이 총리원장을 맡더라도 종조님의 유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상봉안 문제 등은 종단내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종조님의 유법 10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불상봉안, 승려제도 복원 교육강화등의 작업에 나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일은 진각종과 밀교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기에 때론 시도한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는 의미가 큼니다. 불상봉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

다. 현재의 심인당 구조상 불상을 모시기는 힘들지만 영묘전이나 남광당등 특별한 곳에는 모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엄은 교법과 수행체계를 기본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수행승 제도의 도입도 시간의 문제입니다.

▲진각종에 원래부터 출가 독신수행자가 있었습니다. 1964년 구족제 수계식도 있었고, 삭발염의한 수행자들이 심인당에서 포교에 전념했었습니다. 6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바뀐 것입니다. 현재 반대하는 스승님들의 의식도 시간이 가면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각종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는 본존불 지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각종 총금강회(총신도회) 이상귀 회장은 “신교도(신도)들이 각자가 다니는 지역 심인당에 모든 것을 집중하다보니 총금강회의 힘이 미약했다”며 “앞으로 종단과 함께 발전하는 금강회가 되도록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금강회는 그동안 진각종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진각종 신교도들은 믿음에 따른 자신의 수행실현은 잘 해 왔으나 진각종 전체 차원에서 변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따라서 총금강회가 그동안 일궈온 뚜렷한 사업이라면 4년 전부터 지역별로 개최해 온 ‘한마음 체육대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금강회 명칭을 ‘대한불교진각종 전국신도회’로 새롭게 변경하고 개별 심인당의 신교도 조직 활성화

진각종 효암 총리원장 신년 인터뷰

올해 4월로 임기를 마치는 진각종 효암 총리원장. 효암 원장은 “26대 총리원장으로 재임하며, 회당 종조의 정신을 되살려 밀교종중의 여건 조성에 진력해왔다”며 “새로 출범할 집행부가 현재 진행 중인 종단개혁을 마무리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종단의 정체성 문제는 흥망성쇠와 직결됩니다. 원래 진각종의 본존은 육자진언과 비로자나불이었습니다. 65년 총지종과 분종하면서 육자진언만 본존으로 뒀습니다. 진기 18년 종조열반 이전으로 환원하자는 것입니다. 초기교단의 어른 스승들의 말씀과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밀교의 중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관계를 갖고 불교문화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자료개발 진언과 다라니 발굴등도 주요사업이 될 것입니다.

▲한국밀교의 세계화에 대한 계획은

-올해 스리랑카에 어린이 집을 건립하는 등 천천히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도 일본 중국 티베트 몽골의 밀교종단과 세계 밀교도협회 구성을 추진중입니다. 또 원

수행승 제도 도입 시간문제...문화재단 설립

요 밀교종단과 ‘세계밀교도협의회’ 구성 추진

▲올해 핵심사업으로 문화재단 설립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제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종단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 진원지는 심인당이 될 것입니다. 심인당을 문화회관 개념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역사회 교육 문화 복지 사업과 연계되어야 주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인당이 독특한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단차원의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심인당들이 산하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원불교와 세계불교도우의회 창립에 기여했고, 초창기 가입된 3대종단이었습니다. 올해 8월에 열리는 세계불교도우의회 모임을 참가해 다시 가입할 계획입니다. 남 인도에도 4월중 종단의 유학생을 파견해 수행토록 할 것입니다.

▲밀교의 홍보 및 대중화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밀교의 대중화를 위해 밀교의 경서를 번역해 보급하고, 교리강좌를 통해 대중화하겠습니다. 또 뉴미디어시대에 맞춰 인터

“종단 발전 버팀목 되겠습니다”

인터뷰 진각종 총금강회 이상귀 회장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포항 등 6개 지부가 있고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이 있습니다. 또 각 지부에는 지역별로 심인당이 있고 신

교도를 대표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또 신교도들의 수에 따라 대의원을 두고 있는데 지부장 선출권과 총금강회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금강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까?

-먼저 금강회와 종단이 마음을 열고 종단 발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격월로 개최되는 총금강회 회의에 총리원장을 비롯한 종단의 어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금강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진각종 효암 총리원장

넷방송국을 설립하고, 경주 신내연수원에 이어 흥천에도 제2수련원을 건립해 진언행자들의 교육 수행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 명상 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이 진언행자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불교계가 더욱 발전하고, 불자들의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불공기간동안 기원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2006년 창종 60년을 맞아 밀교 중흥종단으로 실천적 도약을 위해 문화 복지 불사를 통한 대중불교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진각종 총리원장 효암 정사는 이밖에도 4대성지 성역불사 지속, 남광당인 탐모원 건립, 총본산 종합개발, 육자진언과 37존 신행의 대중적 전개, 사이버 포교지원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에도 신경을 쓸 것입니다.

또 신교도 한사람 한사람이 교육을 통해 신앙심을 새롭게 고취시키고 포교사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미 총리원 포교부에서 신교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총금강회가 나서서 포교, 교육, 봉사, 복지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참신한 사업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교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심이 돈독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비워내고 실천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봅니다. 종단은 진리가 있기에 발전하고 스승은 법을 전하는 분입니다. 또 우리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잘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치않는 종지와 애증심으로 각각 출석하는 심인당 발전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대구=배지선 기자

불단장엄 시범시행 후 확대

총지종, 전국에 만다라 봉안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이)은 종단 불교의식을 시대에 맞게 바꿔나간다.

총지종은 1월 13일 서울 총지사에서 승단총회를 개최하고 불단장엄, 만다라 전국사원 봉안, 의식과 의례 개편 등 안건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총지종은 이날 총회에서 먼저 한 개의 사원을 선정해 불단장엄을 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해 점차적으로 전국사원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불단장엄 문제는 종단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 만큼 전체 총지종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불상봉안 등에 대해서는 토

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불단장엄의 일환으로 전국 사원에 만다라를 봉안하는 문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총지종은 2년 전부터 총본사 총지사에 금강계 만다라 등을 봉안했으나, 종령의 뜻따른 열반으로 이 일은 그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총지종은 앞으로 공식불공 첫째시 간 향마연승, 불공시간 단축, 다양한 불사 의례 개발 등 불교의식 개혁도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총지종의 이와 같은 불교의식 개혁 방안 마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화화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강유신 기자



총지종은 1월13일 총지사에서 승단총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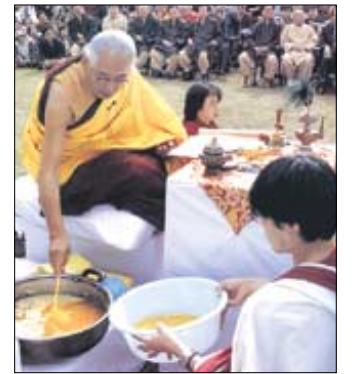
세계밀교의식 한눈에

진각종 ‘밀교의...’ 펴내

세계의 밀교의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화보집 <밀교의 호마와 관장>이 발간됐다.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가 감수하고, 진각대학 허일범 교수가 해설을 붙여 화보집으로 펴낸 <밀교의 호마와 관장>은 한국 티베트 몽골 일본 등지의 밀교의식중 기도성격이 강한 호마행법과 범회 성격이 강한 관장의식이 소개돼 있다.

진각종이 2002년 10월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총리원에 서 연 세계밀교의식 시연법회를 정



티베트 남파파의 공물공양모습.

리한 이 화보집은 각국의 호마의식을 소개한 1부 의식부와 의식내용을 설명한 2부 해설부로 정리됐다. 진각종교육원 발행/3만원. 김원우 기자

법상종 총무원, 평택 유가사로 이전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1월 13일 평택 유가사에서 총무원 이전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평택사암연합회장 겸 여래종 총무원장 범우, 안성 칠장사 주지 보광, 태고종 교육부장 동우 스님과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부원장 도일, 교육원장 무성, 연구원장 우공, 사회부장 일공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

이 참석해 법상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법상종 종정 학감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모든 다툼을 쉬는 승의제는 일체의 찾아다님과 생각함과 모습 등을 초과하였네”라는 법어를 내렸다. 법상종은 2004년 12월 종단 법인인 가를 획득,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Btⁿ 불교TV

곧고 푸른 대나무는
우리 정신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불교TV는 불자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代) 02-3270-3300 www.btn.co.kr